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2.27

미 증시, 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 따른 매파 연준 우려로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물가 상승 압력 여파로 기술주 중심 부진

•미 증시는 PCE 물가지수가 예상과 달리 지난달 수치보다 상승하자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출발. 특히 달러 강세 및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된 점이 특징. 다만, 관련 소식은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통해 일부 예견된 점을 감안 낙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종목별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며 변화가 제한. 더 나아가 소비지표가 견조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된 점도 낙폭 확대 제한(다우 -1.02%, 나스닥 -1.69%, S&P500 -1.05%, 러셀2000 -0.92%)

특징 종목: 기술주 부진 Vs. 천연가스 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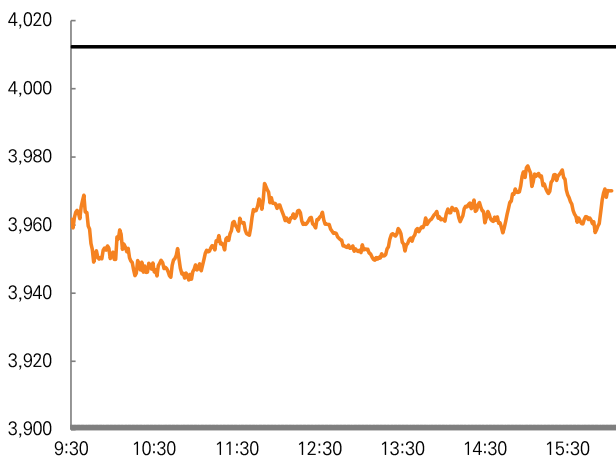
•MS(-2.18%), 애플(-1.80%), 알파벳(-1.89%), 아마존(-2.42%) 등 대형 기술주는 물가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 및 금리 급등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엔비디아(-1.60%), AMD(-2.08%)등 반도체 관련 종목군도 동반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0% 하락. 어도비(-7.63%)는 피그마 인수와 관련 독점 금지법 위반혐의로 사법부가 제소할 준비를 진행중이라는 소식에 급락. 오토데스크(-12.95%)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망 하향 조정 소식에 급락.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힘입어 생산 업체인 EQT(+6.89%), 라인지 리소스(+11.83%)가 급등

한국 증시 전망: 대형주 중심 하락 출발 후 제한된 등락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는 3.16%, MSCI 신흥 지수 ETF는 2.2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3.8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04% 하락. KOSPI는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

•미 증시가 예상을 상회한 PCE 물가지수 발표로 달러화 강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0%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생산 및 2차 전지 업종이 약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 대형주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부담. 물론,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부각되고 있으나, 소비 증가 등을 통한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각된 점은 지수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1% 내외 하락 출발 후 낙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종목별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며 제한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23.61	-0.63	상해종합	3,267.16	-0.62
KOSDAQ	778.88	-0.56	홍콩항셱	20,010.04	-1.68
DOW	32,816.92	-1.02	베트남	1,039.56	-1.34
NASDAQ	11,394.94	-1.69	유로스톡스 50	4,178.82	-1.86
S&P 500	3,970.04	-1.05	영국	7,878.66	-0.37
캐나다	20,219.19	+0.15	독일	15,209.74	-1.72
일본	27,453.48	+1.29	프랑스	7,187.27	-1.7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PCE 물가지수 ②경기 자신감

미국 1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지난달 발표된 0.2%나 예상치인 0.4%를 상회했으며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 전년 대비로도 5.4% 상승해 예상치인 4.9%를 상회.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지난달 발표나 예상치인 전월 대비 0.4%를 상회해 지난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 전년 대비로도 4.7% 상승해 지난달 발표(yoy +4.6%)나 예상(yoy +4.3%)을 상회

세부적으로 보면 내구재는 전년 대비 2.0%에서 1.1%로 둔화되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서비스 부문이 5.4%에서 5.7%로 상승했으며, 에너지와 관련 서비스가 8.5%에서 9.6%로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 지난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등과 같은 모습이며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물가 하락 압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줘 달러 강세 및 국채 금리 특히 단기 금리의 상승폭이 컸음. 이 여파로 연초 이후 상승을 이끌던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를 야기

그렇지만, 여전히 주택 임대료 가격은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이날 발표된 신규주택 판매 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등 주거비용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하반기 물가는 주거비가 주도하며 하락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 했음에도 CME FedWatch를 통해 3월 50bp 금리인상 확률은 변화가 크지 않았음.

이제 시장은 3월 22일 FOMC를 기다리며 3월 14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 여전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하향 안정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3월 FOMC에서 최고 금리 수준을 기존의 5.1%에서 5.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 보통 통화정책의 완전한 효과를 주려면 12~1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높은 금리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

물론, 이날 미시간대의 소비심리지수가 개선되고 기대 인플레 잠정치가 소폭 하향 조정되는 등 안정을 보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1월 개인 지출이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 감소와 달리 1.8% 증가로 발표되는 등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더불어 위축되던 주택시장도 신규주택 주문이 전월 대비 7.2% 증가했는데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렇듯 소비는 개선되고, 주택 시장도 안정을 보이고 있어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

여기에 S&P500 기준 12m Fwd PER이 17.5배를 기록해 5년 평균인 18.5배를 하회하고 있어 밸류에이션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우호적. 이러한 점을 감안 주식시장은 당분간 상승과 하락이 제한된 박스권 장세 속 종목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기술주 부진 Vs. 천연가스 업종 강세

MS(-2.18%), 애플(-1.80%), 알파벳(-1.89%), 아마존(-2.42%) 등 대형 기술주는 물가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 및 금리 급등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엔비디아(-1.60%), AMD(-2.08%), 인텔(-1.83%) 등 반도체 관련 종목군도 동반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0% 하락

어도비(-7.63%)는 디자인 관리 툴인 피그마 인수와 관련 독점 금지법 위반혐의로 미 사법부가 제소할 준비를 진행중이라는 소식에 급락. 오토데스크(-12.95%)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망 하향 조정 소식에 급락. 서비스나우(-3.65%)도 동반 하락. 인튜이티브(1.93%)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하는 등 차별화 진행

보잉(-4.79%)은 동체 문제로 787 드림라이너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소식에 급락. 엡시(-5.68%)는 1분기 매출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발표해 지난해 1분기 매출보다 낮은 수준을 발표하자 하락. 모더나(-5.63%)는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 특히 코로나 백신 수요 감소에 따른 결과로 추정.

반면, 비온드미트(+10.15%)는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급등. 황화수소 시장의 강한 성장에 대한 기대 속 린데(+4.75%), 다우케미칼(+1.05%) 등이 강세.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힘입어 천연가스 생산 업체인 EQT(+6.89%), 래인지 리소스(+11.83%)가 급등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37	대형 가치주 ETF (IVE)	-0.82
클린테크 ETF (CTEC)	-2.82	중형 가치주 ETF (IWS)	-0.60
소매업체 ETF (XLY)	-1.57	소형 가치주 ETF (IWN)	-1.00
온라인소매 ETF (EBIZ)	-3.07	대형 성장주 ETF (VUG)	-1.71
미국 인프라 ETF (PAVE)	-0.17	중형 성장주 ETF (IWP)	-1.23
핀테크 ETF (FINX)	-1.69	소형 성장주 ETF (IWO)	-0.89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3.22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63
클라우드 ETF (CLOU)	-2.55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92
사이버보안 ETF (BUG)	-1.62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33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00	미국 국채 ETF (IEF)	-0.60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90	하이일드 ETF (JNK)	-0.58
바이오섹터 ETF (IBB)	-2.01	신흥국 채권 ETF (EMBD)	-0.32
로봇&AI ETF (BOTZ)	-0.94	물가연동채 ETF (TIP)	-0.65
반도체 ETF (SMH)	-1.79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75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소재	511.33	+0.65	-1.09	-2.69
금융	592.38	+0.10	-1.93	-1.77
에너지	645.32	-0.01	-3.48	-7.89
유틸리티	337.17	-0.02	-1.82	-3.74
산업재	846.99	-0.58	-2.11	-1.02
필수소비재	758.81	-0.59	-0.13	-0.44
헬스케어	1,495.64	-1.27	-1.80	-3.38
커뮤니케이션	172.39	-1.43	-4.82	-5.75
경기소비재	1,117.47	-1.56	-4.41	-2.90
IT	2,372.37	-1.77	-3.87	-0.57
부동산	239.51	-1.82	-4.22	-5.5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1% 내외 하락 출발 후 제한적 등락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는 3.16%, MSCI 신흥 지수 ETF는 2.2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13.8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04% 하락. KOSPI는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의 견고함 속 상승 출발했으나, PCE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특히 중국 주요 증시가 외국인 매물과 미-중 갈등 부각,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로 약세를 보인 점도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외국인의 현, 선물 순매도가 이어지는 등 수급적인 부담 속 KOSPI는 0.63%, KOSDAQ은 0.56%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예상을 상회한 PCE 물가지수 발표로 달러화 강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0%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생산 및 2차 전지 업종이 약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 대형주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부담.

물론,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부각되고 있으나, 소비 증가 등을 통한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각된 점은 지수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미 증시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변화 속 개별 종목 중심으로 변화를 보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1% 내외 하락 출발 후 낙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종목별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며 제한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물가 상승 압력 확대

미국 1월 개인 소득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 증가보다 늘어난 0.6%로 발표됐으나, 예상치인 1.0%를 하회. 개인 지출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 감소와 달리 1.8% 증가로 발표돼 예상치인 1.2% 증가를 상회.

1월 PCE 가격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2% 상승이나 예상치인 0.4% 보다 높아진 0.6% 상승으로 발표됐으며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된 5.3%와 예상치인 4.9%보다 높은 5.4%로 발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발표 수치나 예상치(mom +0.4%)를 상회한 0.6%로 발표됐으며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된 4.6%나 예상치인 4.3%를 상회한 4.7%로 발표.

1월 신규주택 판매건수는 지난달 발표된 62.5만 건이나 예상치인 61.7만 건을 상회한 67만 건으로 발표. 중간 판매 가격은 46만 5,600달러에서 42만 7,500달러로 둔화

2월 소비심리지수 확정치는 지난달 발표된 64.9나 잠정치인 66.4보다 개선된 67.0으로 발표되었으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발표된 3.9%보다 상승한 4.1%로 발표됐으나 잠정치인 4.2%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달러, 금리, 물가 상승 압력 속 강세

국제유가는 3월부터 러시아의 원유 공급 축소 개시를 앞두고 상승. 특히 지난해 연말 소비 감소를 뒤로하고 1월에는 온화한 날씨로 원유 소비가 증가했다는 점이 부각된 가운데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 소식 등도 긍정적인 영향. 한편, 천연가스는 최근 미국의 강추위가 유입되자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급등.

달러화는 예상보다 견고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부각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자 일각에서 유로존 경기에 대한 부담이 부각되며 4분기 강세를 보여왔던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임.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94% 약세를 보인 가운데 호주 달러, 브라질 헤알 등은 달러 대비 1%대 약세를 보임

국채금리는 PCE 물가지수가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지난달 수치보다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특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3월 FOMC에서 최고 금리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됨. 다만, 미시간대의 소비심리지수 확정치 세부 항목 중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잠정치인 4.2%에서 4.1%로 하향 조정된 점은 상승을 일부 제어했으나 영향이 크지는 않음.

금은 달러 강세 등으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연준의 긴축 우려로 하락. 곡물은 밀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미국산 밀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 특히 우크라이나산 밀이 시장에 나오며 값싼 공급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영향. 대두와 옥수수도 밀 가격 급락과 미국 수출 둔화 우려로 약세.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71%, 철근은 0.81%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6.32	+1.23	-3.07	Dollar Index	105.214	+0.59	+1.30
브렌트유	83.16	+1.16	+0.19	EUR/USD	1.0548	-0.45	-1.37
천연가스	2.55	+4.77	+6.66	USD/JPY	136.48	+1.32	+1.74
금	1,817.10	-0.53	-1.87	GBP/USD	1.1944	-0.57	-0.77
은	20.94	-2.34	-4.29	USD/CHF	0.9404	+0.69	+1.64
알루미늄	2,335.50	-2.53	-2.18	AUD/USD	0.6726	-1.20	-2.22
전기동	8,716.50	-2.11	-3.02	USD/CAD	1.3611	+0.46	+1.02
아연	2,964.00	-2.32	-3.07	USD/RUB	75.9000	+0.28	+3.05
옥수수	649.25	-1.52	-3.81	USD/BRL	5.1997	+1.32	-0.32
밀	721.75	-3.83	-7.02	USD/CNH	6.9810	+0.94	+1.56
대두	1,519.25	-0.52	-0.13	USD/KRW	1,304.80	+0.59	+0.41
커피	187.70	-1.05	+4.13	USD/KRW NDF1M	1,313.85	+1.31	+1.5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943	+6.64	+12.84	스페인	3.507	+6.40	+9.80
한국	3.520	-7.70	-9.90	포르투갈	3.418	+6.30	+9.60
일본	0.504	-0.20	-0.30	그리스	4.387	+1.40	+9.50
독일	2.537	+5.90	+9.70	이탈리아	4.439	+5.70	+13.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